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군, 도시민 대상 귀농 실습 교육 진행

연수생이 직접 고른 농장서 1:1 실습... 농가와 멘토·멘티 연결



장성군이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상대로 귀농 실습 교육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업에 새로 도전하는 귀농인이 수개월 동안 자신이 선택한 농장에서 실습하며 영농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장성군은 귀농인과 선도 농가를 1:1로 연결해 기술적 지원은 물론

농촌 정착을 위한 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실습 교육에는 24명의 연수생이 참여해 지난달부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한 실습 농가에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있다. 작목 특성에 따라 3~7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가 영농 적용실습, 각종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자율학습조직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실습 교육 농장은 총 16곳이다. 귀농인들은 이들 농장에서 토

마토, 블루베리, 포도버섯, 복분자 등 선호도가 높은 11개 작목의 재배법을 배울 수 있다. 장성군은 연수생이 원하는 경우 다른 품목도 추가로 선정해 교육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매월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연수생에게 최대 월 8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공제에도 가입했다.

연수생 김모씨는 "귀농을 결정했지만 무엇보다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았다"라면서 "농업으로 성공한 농가에서 영농 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언을 받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년 전부터 시작한 현장 실습교육은 귀농인들이 가장 호평하는 사업이다"라며 "신규 농업인 특성에 맞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선배 귀농인들로부터 조언을 받게 해 귀농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한 것이 높은 교육 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갯벌에어문쌀' 전남 10대 브랜드쌀 최초 선정

대외적 인지도 향상·판매 활성화 크게 기여 기대



'갯벌에어문쌀'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

랜드쌀'에 첫 선정됐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은 각 시군의 대표쌀 추천을 받아,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의 발탁 평가, 품종 혼입률, 기계분질, 외관상 품위, 잔류농약검사 등 다각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매년 선정해온 기존 브랜드쌀들의 철저한 관리로 신규 진입이 쉽지 않으나, 신안군은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에 힘써, 지역농협, 농업인이 협의를 거쳐 우량종자 공급, 육묘·이앙·제초·수확 등 각지의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한 영농지도

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특히 품종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쌀 단지 전용 이앙기와 콤바인을 지원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유제석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금번 갯벌에어문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에 계기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치밀한 품질관리와 홍보·판촉을 강화해 갯벌에어문쌀이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전시·연사회

현장으로 사할 덜어주고 관련 농업기계 정보 제공

영광군은 벼 대체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 고민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지난 9일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전시·연사회'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는 쌀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과 타작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기존 쌀 농가가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감소를 보존하

는 사업이다.

논 타작물 재배는 전국적으로 신청자 수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파종과 수확 작업의 문 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수작업 기계화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좋은 수준이나 논에 타작물 재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농업 기계는 총체비 이외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전시·연사회'를 개최하였으

며, 관련 농기계의 전시·연사회로 농기계의 원활한 운영과 논 타작물 재배 영농 준비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파종시기를 대비하여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공파종기, 옥수수 파종기)를 현장에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에 주력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로 다가오는 파종 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농기계 보유 상황에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구례군은 사단법인 가야금병창 보존회(이사장 강정숙)에서 주관하는 제16회 전국 가야금경연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구례문화예술회관 및 섬진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야금 명인 서공철 선생의 고향 구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로 초·중·고,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가야금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각 분야 대상 1명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자 수는 모두 51명으로 총 상금은 3,980만 원이다. 최고 영예인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과 1,000만 원 상금, 부상으로 인간문화재 고홍곤 국악기 연구원의 산조 가야금 1대도 주어진다.

구례=박진호 기자

함평군,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배포

함평군이 올해 5월 달라진 지방세법령을 안내하는 '2018년 지방세 및 감면제도 안내' 소책자를 발간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 관내 금융기관, 마을회관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5페이지 분량의 이 소책자에는 지방세관련 기본용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감면·구제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 달라진 법령 및 감면제도와 영업시간 후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어, 군

은 이번 책자가 지방세 신고·납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군은 조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군과 군민이 상생하는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보성군민의 날'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행사 열려

새천년 군민헌장·엠블럼·슬로건 선포



보성군은 10일 보성체육공원 일원에서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찬란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를 위한 재정명(再定名)천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기념행사는 재정명 천년을 여는 천년의 울림 예술공연을 시작으로

새천년 '보성군 군민헌장' 선포, 천년기념 공식 엠블럼 및 슬로건 공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군민헌장은 정찬주 작가가 작곡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수렴하여 천년보성의 미래 도약과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군민의 다짐을 담아 43년 만에 재탄생됐다.

엠블럼은 보성강을 배경으로 대표 특산물인 녹차 잎과 천년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슬로건은 '천년을 잇는 역사, 희망을 빛는 보성'으로 재정명 천년이 갖는 역사성과 희망 미래를 표현했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보성군이 새천년, 새로운 시대 개막과 함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번영의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